

## 本校출신 教授채용을 찬성한다

徐 正 宇

(延世大 新聞放送學科)

本校 출신 교수를 우선 채용해야 된다는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 학문적 우수성, ② 전공 분야에의 적합성, ③本校 출신 교수와 타교 출신 교수와의 적절한 균형성 등이 된다.

교수는 우선 학문적 우수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학문적 우수성은 교수 능력과 연구 능력을 의미한다. 교수 능력과 연구 능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 없는 교수는 허황하고, 교수 없는 연구는 비현실적이다.

아무리 교수의 학문적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더라도 대학교육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의 적합성이 없으면 채용되기 어렵다. 결국 교수의 학문적 우

수성이란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수 채용은本校 출신 교수와 타교 출신 교수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일本校 출신 교수들만으로 교수가 충원되면 그들간의 학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자극을 상실하기 쉽다. 반대로 타교 출신 교수만으로 충원될 경우에는 그러한 학연 때문에 현상에 만족하고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 채용은 가능한本校 출신 교수와 타교 출신 교수간의 비율을 적절히 균형 있게 유지함이 바람직스럽다. 그러한 균형은 학교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 학생 지도 능력이 교수 충원에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 사회에 있어서 교수의 기능은 학문의 전수에 있지 학생

지도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 지도 능력이 교수 채용에 있어서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전제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필자는本校 출신 교수의 우선 채용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한 주장의 이유는 대개 아래와 같다.

첫째로本校 출신 교수는 타교 출신 교수보다 학교와 학생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평소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서 애정을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연구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수가 되기 어렵다. 물론 대학의 1차

적 사명은 학문의 전수에 있지 사랑의 전수에 있지 않다. 사랑의 전수는 교회나 법당 아니면 가정에서나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선 사랑이 없으면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가르친다는 행위는 결국 사랑의 표현이라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본교 출신 교수는 타교 출신 교수보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학생에 대하여 사랑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수가 외국 교수보다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음과 흡사하다.

둘째로 본교 출신 교수는 타교 출신 교수보다 학생 지도에 있어서 유리한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모교 출신 교수들을 좋아하고 따른다. 그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선배이면서 교수라는 일종의 동료의식, 연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깔려 있다고 평가된다.

학생 지도를 할 때 본교 출신 교수가 타교 출신 교수보다 유리한 것은 교수로서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타이르고, 나무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정 있는 체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교 출신 교수는 타교 출신 교수보다 교수 자격 외에 동문이라는 다른 유리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봉건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동문 의식,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학연 등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대학 사회도 일종의 사회라면 그러한 관계는 두말할 것 없이 증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째로 본교 출신 교수는 타교 출신 교수보다 교수간 유대를 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교수 사회도 인간 사회라면 그 속에는 인연, 학연, 지연 등의 인간적 관계들이 작용해서 수없이 많은 파벌들이 발생한다.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파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신 대학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라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에는 학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대학 사회는 지성 사회로 인식된다. 따라서 합리성을 존중하는 대학 사회에는 파벌과 같은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파벌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대학 사회 역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파벌이 존재하고 이러한 파벌은 출신 대학과 같은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문제시될 수 있다.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교수 파벌이 교수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문제시되고 있다. 가장 합리성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대학 교수들이 파벌과 같은 가장 폐쇄적

이고 독단적인 활동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다.

본교 출신 교수들은 최소한도 출신 대학이란 원인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파벌을 형성할 필요성은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본교 출신 교수들은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대학 출신이란 동류성 때문에 타대학 출신 교수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네째로 본교 출신 교수는 타대학 출신 교수들보다 학교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대학 당국이 대학의 중요한 보직, 예를 들면 교무처, 학생처, 대학신문 등에 관련된 직무들은 빠짐없이 본교 출신 교수에게 맡기는 현상 속에서 입증되고 있다.

대학교수의 1차적 책임은 학문이지만 학문을 위해서나 학문 외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차피 요구받게 된다. 학문이나 행정이 결국 대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교수와 대학 당국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교수를 위해서나 대학 당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교수와 대학 당국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유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는 아무래도 본교 출신 교수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립된다고 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 당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본교 출신 교수나 타교 출신 교수나 비슷한 강도의 의견들을 개진하게 되겠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본교 출신 교수가 타교 출신 교수보다는 약간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이 현실이다.

다섯째로 본교 출신 교수는 타교 출신 교수보다 동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점차 대학 사회는 동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중요한 요인으로서 산학협동의 중요성 증대, 대학 제정의 상대적 어려움 그리고 동문 세력의 상대적 증가 등이 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은 동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며, 동문은 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 당국이 동문과의 관계만을 관장하는 부총장제를 실시할 만큼 동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 동문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동문이란 같은 대학을 졸업한 선·후배 졸업생들을 의미한다. 다른 업무는 몰라도 동문 관계 업무에 있어서는 동문 교수의 기능과 역할이 절대적이다. 다른 대학을 졸업한 교수가 보직 관계로 동문 관계 업무를 맡아 하면서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마지막으로 본교 출신 교수

는 타대학 출신 교수보다 대학의 특성과 학과의 형성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전통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러한 문제가 좀 약하지만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은 대학 차원에서 특성 부각에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일반적인 우수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에서부터 기독교 대학과 일반 대학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학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유지 발전시켜 온 특성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확보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질적인 요소가 첨가되면 필수록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특성은 무너지기 쉽다.

동문 교수는 최소한 학교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부족한 동문이라도 다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는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문 교수는 다른 대학 출신 교수보다는 대학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한다. 대학의 특성과 운세 특히 교수 출신과 관계되는 국면으로서는 학풍이나 학파가 있다.

학풍이란 학문의 분위기로써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다. 학생은 교수로부터 학문을 전수받고, 교수는 학생에게 학문을 전수하는 가운데 대학의 학풍이 형성되고 발전된다. 따라서 본교에서 4년 동안 교수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대학원에서 연구한 다음 다시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문을 전수하는 본교 출신 교수는 다른 교수들보다는 학풍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파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교수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엄격하게 보면, 학파는 대학을 같이 다녔느냐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비록 다른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다른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더라도 학문 영역이 같으면 같은 학파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학파 역시 학풍과 같이 사제지간의 교육과 연구 과정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 한 분야를 스승과 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할 때에만 학파의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교 출신 교수는 다른 교수보다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